

광주FC 완벽했던 시즌...최다승점 86점 새 기록 썼다

K리그2 우승...대장정 마무리

광주FC의 2022시즌이 '86'점으로 마무리됐다. 광주가 지난 15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아산과의 K리그2 2022 44라운드 최종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앞선 34라운드 경남전 4-0 대승과 함께 작성한 '25승'이라는 K리그2 최다승 신기록을 경신하지 못했지만, 승점 1점을 보태면서 25승 11무 4패, 승점 86점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K리그2 최다승점 기록이다. 광주는 앞서 2017년 경남이 작성했던 승점 79를 넘어,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왔다.

이날 득점을 추가하지 못했지만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68득점 23실점(36득실차)의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과시했다.

경기당 평균 0.58골을 내주는 데 그치면서 올 시즌 K리그2 최소 실점 1위에 자리했다. 또 경기당 평균 1.7골을 성공시키는 등 뜨거운 화력을 보여주면서 대전하나시티즌(70점)에 이어 최다 득점 2위에 랭크됐다.

골키퍼 노희동은 최종전에서 K리그 데뷔전에 나서 무실점을 기록, 시즌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최종전 충남아산과 0-0 무승부

골키퍼 노희동 데뷔전 무실점 최소 실점 1위·최다 득점 2위 탄탄한 공수 밸런스 보여줘 전남은 올 시즌 최하위 마감

전반 초반부터 치열한 힘겨루기가 전개됐다.

전반 20분 마이키가 시원한 왼발 슈팅을 선보였다. 하지만 아산 골키퍼 박한근의 손을 맞은 공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다.

4분 뒤 충남아산의 코너킥 상황에서 노희동이 편칭으로 상대 공세를 막는 등 전반전이 0-0으로 마무리됐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이정호 감독이 이삼기, 이견희, 마이키를 빼고 이민기, 이희균, 하승운을 투입해 전력을 재정비했다.

초반 충남아산의 거친 공세를 잘 막은 광주가 후반 15분, 산드로의 패스를 받은 이희균의 슈팅으로

공략에 나섰지만 공은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 34분에는 허율의 터닝 슈팅이 골키퍼 품에 안겼다. 후반 40분에는 침투 패스를 받은 하승운이 골키퍼를 마주하고 슈팅을 시도하려다가 충남아산 이희민에 막혔다.

결국 경기가 0-0으로 마무리되면서 광주는 무승부로 2022시즌을 마무리했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최종전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남은 0-1로 뒤진 후반 25분 플라나의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31분 발로텔리의 슈팅이 부천 골키퍼 김호준에게 막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장성재가 띄운 공을 고태원이 헤더로 연결했다. 바운드 된 공이 그대로 부천 골대를 가르면서 역전극이 펼쳐졌다.

하지만 전남은 후반 추가시간 윤지혁에게 두 번째 골을 내주면서 2-2 무승부로 최종전을 끝냈다.

이날 무승부로 전남의 성적은 6승 17무 17패(승점 35)가 됐다. 승점 1점을 더했지만 부산아이파크가 서울이랜드전 1-0 승리로 승점 36점을 만들면서, 전남은 최하위로 올 시즌을 마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이희균이 지난 15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아산과의 K리그2 44라운드 최종전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4일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을 열었다. 선수, 임원 등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 정신으로 매 경기 최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

광주장애인선수단 286명 참가

광주장애인 선수단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전을 다짐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4일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을 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정무장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 기관장과 경기단체 회장, 선수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는 사이클, 탁구, 육상, 보치아 등 22개 종목에 286명 선수가 참가한다.

탁구 김정길, 조정 김세정은 대표로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하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서했다.

광주선수단은 ‘종합순위 한 자리’ 목표 달성을 노린다.

지난 41회 대회에서 4관왕을 달성한 김근수(사격)와 3관왕을 차지한 김영건(탁구), 김하은(이수연·이승훈(육상·가이드러너 이봉재) 등이 메달 사냥에 나선다.

국가대표 보치아 강선희, 수영 정봉기, 펜싱 신승리의 활약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가대표 이정수(배드민턴·전대사대부고 1년)

도 메달을 노리고 있다.

지적촉구 선수단은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까지 7연패를 달성했고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승한 팀이다. 이들의 정상 탈환 여부도 관심이다.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9일부터 24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열린다.

한편, 이번 결단식에서 ㈜전지장례문화원, 목송그룹 등 지역 기업체 20곳에서 장애인체육발전과 전국체전 출전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후원금을 기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전국체전 모범선수단상 수상

전남 선수단이 울산시 일원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폐막식에서 모범선수단상을 받았다.

전남 선수단은 대회기간 타 사·도에 모범을 보인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국회의장배 모범선수단상을 받았다. 전남 선수단은 사·도체육회와 경기

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 상의 주인공이 됐다.

안병욱 전남선수단 총감독은 “선수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으로 목표를 뛰어 넘은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 “내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전남에서

개최되는 만큼 전라남도 및 전남도교육청과 시·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원활한 협업을 최선으로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47개 종목 168종별에 1675명(선수 1,137명, 임원 538명)의 선수들이 참가, 155개 메달(금 49, 은 44, 동 62 시범종목 포함)을 획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순천시 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

19일 개막...17개국 2000명 경쟁

전남도가 '2022 순천-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 대회'를 19일부터 5일간 순천 용계산 산악자전거 대회장에서 개최한다.

아시아 17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순천시가 주최하고 대한자연자전거연맹과 한국산악자전거연맹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산속 비포장길을 달리는 올림픽경기(XCO), 릴레이경기(XCR), 토너먼트(XCE)인 크로스컨트리 3종과 정상부에서 시속 80km 이상 속도로 내리막길을 달리는 다운힐 등 총 4개 종목으로 치러진다.

종목별 우수 선수에게 총 27개 메달을 수여하고 국가별 획득 포인트에 따라 '2024년 파리 올림픽 산악자전거(MTB) 경기' 출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또 대회 성적에 따라 세계 랭킹이 결정되므로 선

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대회로 인정받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동안 전남도에서는 2020년 2월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업무협약 후 이번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1년 7월 아시아자전거연맹으로부터 최종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경기장은 국제경기 규모에 따라 2021년부터 46억원을 들여 순천 용계산 일원에 크로스컨트리 3개 코스(4.6km), 다운힐 2개 코스(2.3km), MTB지원센터, 용계쉼터 등을 조성했다.

아시아 산악자전거 대회는 스포츠와 레저, 모험이 결합된 엑스트림 경기로 국내서 2010년 충북 제천 대회에 이어 12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서순우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이 아시아의 산림레포츠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회 이후도 지역민의 산림 레저활동과 연계해 역동적인 숲으로 거듭나도록 시설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손흥민 챔스리그서 '가장 빛난 선수'

이 주의 선수·골·베스트 11 휩쓸어

'손세이셔널' 손흥민(30)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이 주의 선수, 골, 베스트 11을 모두 휩쓸었다.

UEFA가 14일 발표한 UCL 4주 차 이 주의 선수에 손흥민이 선정됐고, 4주 차에 나온 골 가운데 손흥민의 왼발 발리슛이 '이 주의 골' 영예를 안았다.

4주 차 베스트 11에 해당하는 '이 주의 팀'에도 손흥민이 미드필더 부문에 이름을 올려 2022-2023시즌 UCL 4주 차 경기에서 가장 빛난 선수로 뽑혔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잉글랜드)은 13일 영국 런던 토트넘 핫스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2023시즌 UCL 조별리그 D조 4차전 프랑크푸르트(독일)와 홈 경기에서 3-2로 이겼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두 골을 터뜨리며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다.

0-1로 뒤지던 전반 20분 동점 골을 넣었고, 2-1로 앞선 전반 36분에는 '이 주의 골'인 왼발 발리슛으로 3-1을 만들었다.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의 크로스를 패턴티 지역 중앙에서 왼발 발리슛으로 연결한 손흥민은 1주 차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 2주 차 열린 흘란(맨체스터시티), 3주 차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 등 세계적인 선수들의 뒤를 이어 4주 차 '이 주의 골' 주인공이 됐다.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운 토트넘은 2승 1무 1패, 승점 7을 기록해 D조 1위가 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정직한 후보2
- 티켓 투 파라다이스, 인생은 아름다워,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태평학교
- 2관 대우가, 오만: 천사의 탄생
- 3관 오만: 천사의 탄생
- 4관 인생은 아름다워
- 5관 공조2: 인터내셔널
- 6관 공조2: 인터내셔널, 정직한 후보2
- 7관 씨네캐슬 티켓 투 파라다이스,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 8관 씨네캐슬 스마일, 극장판 헬로카봇: 수상한 마술단의 비밀, 고고다이노 극장판: 얼음공룡의 비밀

GAC기획·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③ 트리오 오원
일시: 2022. 10. 17.(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

GAC기획·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④ 몰토 콰르텟
일시: 2022. 11. 7.(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